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10

국제수지 · 자본이동 · 환전 · 원화의 가격

한국 경상수지 615억 달러 흑자의 역설

달러가 넘쳐도 원화는 왜 약한가

경상흑자·해외자산·외화예금에서 현물환 수급까지

614.6억달러
9월 경상수지 · 잠정 [1]

304.4억달러
9월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 계산 [3]

1,356.6원
11/6 원/달러 · 15:30 [6]

흑자는 크다.
원화의 방향은 달러의 사용처가 가른다.

9월의 원화 강세와 11월의 단기 약세를 분리하고, 소득·보유·환전의 경로로 흑자의 힘과 한계를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07

TRADELENS.KR

거시경제·대외자산·외환수급 분석

01 / RESEARCH VIEW

흑자는 완충력이다. 환율의 보증서는 아니다.

핵심 질문은 달러를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원화로 바꾸는가다.

핵심 결론

대규모 흑자는 한국의 대외지급 기반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외화가 민간 해외자산·국내 외화예금으로 보유되면 같은 규모의 현물환 매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본 판단은 **일방적인 원화 강세보다 흑자의 완충력과 금융수요 충격이 맞서는 양방향 변동성**이다.

관측 사실	분석에 남기는 의미
9월 경상흑자 614.6억달러 [1]	대외거래 순수입은 크다. 당일 환전 물량은 별도다.
9월 원/달러는 하락 [4] [5]	흑자의 원화 지지 효과를 무시할 근거도 없다.
11/6에는 원/달러 14.5원 상승 [6]	월간 흑자와 하루의 위험회피 충격은 공존한다.

이번 보고서의 판단 경로

① 흑자의 구성과 관측 기간을 맞춘다. ② 대외자산 취득·외화 보유·환전의 연결을 본다. ③ 달러 조달 비용과 현물환 가격을 분리한다. ④ 실제 환전·자금유입·조달여건이 동시에 바뀌는지 점검한다.

현재 자료로 환율 변동을 수출·해외투자·금리 각각의 기여도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다. 따라서 단일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공개 통계가 지지하는 경로와 그 판단을 바꿀 조건을 제시한다.

읽는 순서: 3~4쪽 사실 기준선 → 5~10쪽 자금 경로 → 11~13쪽 경제적 효과·정책 → 14~15쪽 전망·점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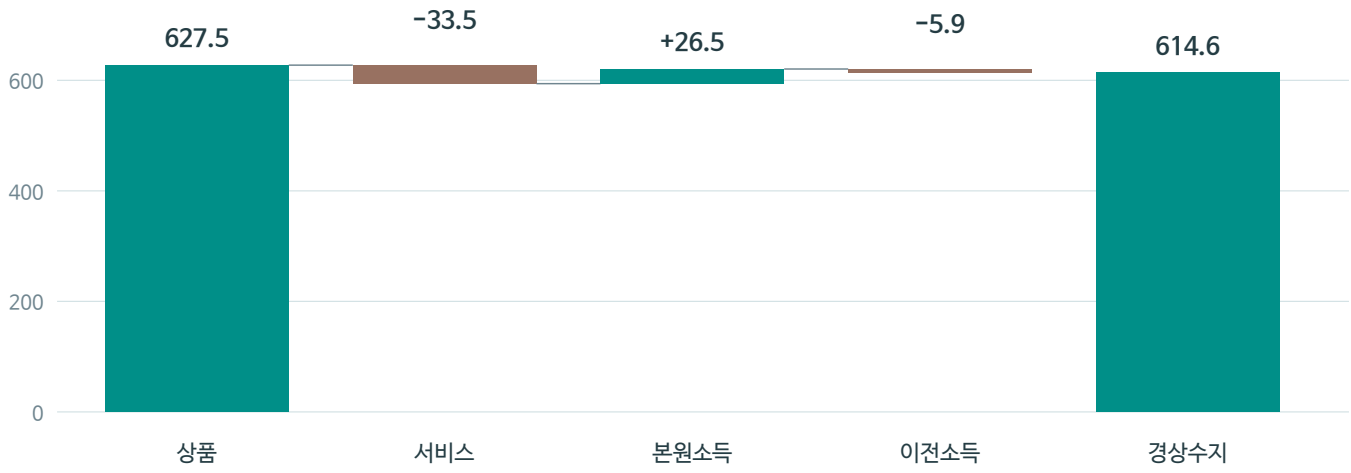
02 / CURRENT-ACCOUNT BASELINE

615억달러 흑자를 만든 것은 상품수지다

2026년 9월 잠정치. 제목의 615억달러는 614.6억달러의 반올림이다.

9월 경상수지 구성

억달러



항목	9월 수지	분석상 역할
상품	+627.5	수출과 수입의 차이
서비스	-33.5	서비스 순지급
본원소득	+26.5	배당·이자 등 순소득
이전소득	-5.9	대가 없는 이전의 순액
경상수지	+614.6	위 네 항목의 합계

국문 단위: 억달러. 상품수지 627.5 − 33.5 + 26.5 − 5.9 = 614.6. 세부치는 한국은행 발표를 전한 자료 기준. [1] [3]

상품수지가 경상흑자의 102.1%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항목의 순합계가 -12.9억달러이기 때문이다. 이를 상품수출의 국내 현금 유입률이나 환전 비율로 읽을 수는 없다. 경상흑자의 크기와 외환시장에 나오는 주문의 크기는 구분해야 한다.

> **TradeLens 해석**
>
> 9월 흑자의 기반은 상품 경쟁력과 수출 실적이다. 이 기반은 원화의 지지 요인이지만, 그것이 전액 원화 수요로 전환되는지는 이후 자금 운용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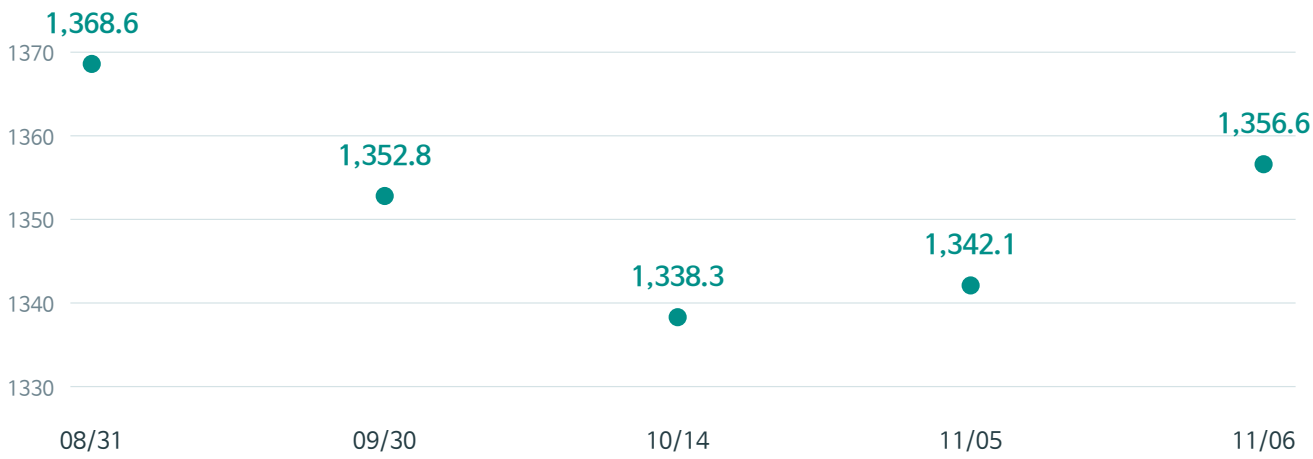
03 / TIME-ALIGNED FX EVIDENCE

9월에는 강세였다. 11월에는 하루 만에 반전했다.

원/달러 상승은 원화 약세, 하락은 원화 강세다. 월간·구간·하루 변화를 분리한다.

선택 관측일의 원/달러

원 / 달러 · 일별 시계열 아님



동일 간격의 관측점 · 점 사이 경로를 보간하지 않음

비교 구간	원/달러 변화	원화 가치 변화*
8/31 → 9/30	1,368.6 → 1,352.8 / −1.15%	+1.17%
9/30 → 11/6	1,352.8 → 1,356.6 / +0.28%	−0.28%
11/5 → 11/6	1,342.1 → 1,356.6 / +1.08%	−1.07%

*달러 대비 원화 가치 변화 = 이전 원/달러 ÷ 이후 원/달러 − 1. 11/6은 15:30 주간거래 기준. 11/5 값은 1,356.6 − 14.5로 산출. 선택 관측치이지 전체 일별 경로가 아니다. [5] [6]

따라서 “사상 최대 흑자에도 9월 내내 원화가 약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9월 이후 환율 하락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1월의 단기 반전만으로 9월의 무역·환전 효과를 부정할 수도 없다. [4]

제목의 질문을 정확히 읽는다

문제는 흑자의 무효가 아니라 지속적인 절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다. 한 달의 흑자가 이후 모든 거래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04 / FROM EARNINGS TO CONVERSION

수출 달러와 현물환 매도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거래 발생·대금 수취·보유·환전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 단계다.

01 **거래 발생** 상품·서비스·소득 › 02 **달러 수취** 결제 시점 › 03 **자금 배분** 지출·보유·투자 › 04 **원화 환전** 국내 자금 수요

통계상 소득의 발생과 시장의 원화 매입은 끝점이 다르다. [10] [12] [13]

달러의 사용처	원화 수요로 연결되는 방식
국내 원화 비용 지급	급여·세금·원화채무에 필요한 만큼 환전 가능
달러 수입대금·달러채무 상환	외화를 그대로 사용해 새 현물환 매매를 줄일 수 있음
외화예금·해외자산 보유	환전 시점이 뒤로 이동하거나 장기간 달러로 보유
기존 선물환 계약 결제	환위험 이전이 대금 수취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음

국제수지는 거주자·비거주자 거래의 미달러 환산 통계다. 표시통화가 실제 결제통화와 같지는 않으며, 거래 발생과 대금 결제도 시차가 있다. 해외법인 이익이 현지에 남으면 한국의 소득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현금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10] [13]

환전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 이유

수출기업의 현금 필요, 기존 헤지, 외화 지출과 해외 투자계획은 기업마다 다르다. 경상흑자와 예금 증가분만으로 “몇 %가 환전되지 않았다”를 계산하면 거래·잔액·통화의 범위를 섞게 된다.

> **분석의 초점**
> 외화가 국내에 들어왔는가뿐 아니라, 원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도됐는가를 봐야 한다. 결제 통화와 사용 목적이 환율로 전달되는 강도를 바꾼다.

05 / FINANCIAL-ACCOUNT CHANNEL

해외투자와 외국인 매도는 서로 다른 거래다

9월 국제수지 금융계정.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의 부호를 맞춰 읽는다.

국제수지 항목	거래 증감 / 억달러	의미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	+114.3	대외 직접투자 자산 증가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65.2	대외 직접투자 부채 증가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	+166.3	해외 주식·채권 자산 증가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138.1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보유 감소

세부치: 한국은행 발표 재전달 자료. 자산·부채는 국제수지의 대외관계 기준이다. [3]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의 두 구성요소



166.3 + 138.1 = 304.4억달러 · 현물 달러 순매수액과는 다름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분은 166.3 − (−138.1) = 304.4억달러다. 이는 대외자산 취득과 대외부채 감소를 합친 회계상 흐름이지, 같은 날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를 304.4억달러 순매수했다는 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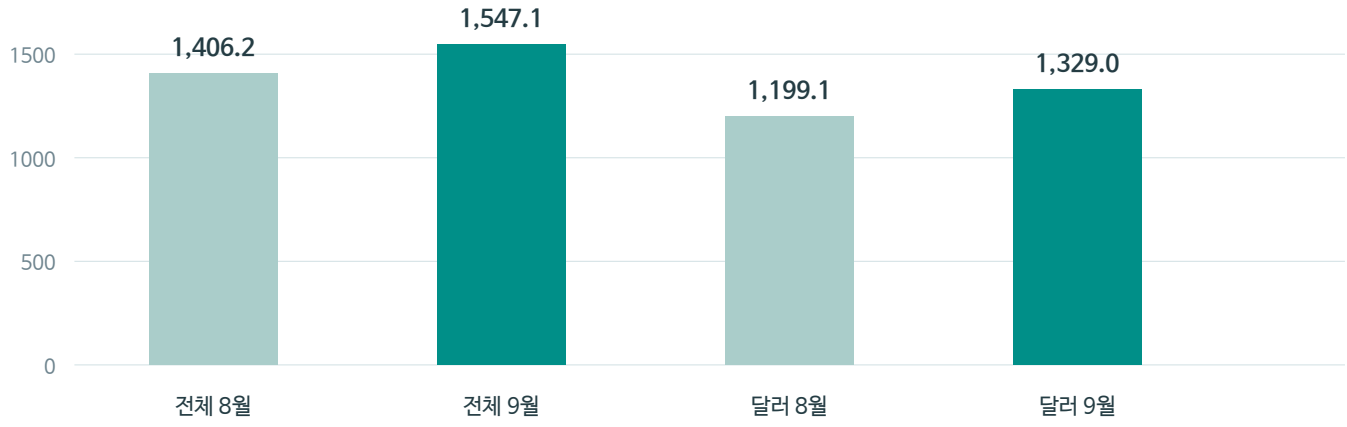
> **순자산 증가는 흑자의 반대편이다**
>
> 금융계정 전체의 순자산 증가는 543.4억달러다. 이 금액을 경상흑자에서 빼서 “국내에 남은 달러”로 표시하지 않는다. 자본수지·오차 및 누락까지 포함한 통계 항등식과 외환 주문은 다른 문제다. [2]

06 / DEPOSIT RETENTION

외화예금 증가는 환전 지연의 단서다

9월말 잔액과 9월 중 증가분을 구분한다. 달러화와 전체 외화를 혼합하지 않는다.

외화예금 잔액의 변화 억달러



관측값	9월말 / 전월말 대비
전체 외화예금	1,547.1억달러 / +140.9억달러
달러화예금	1,329.0억달러 / +129.9억달러
전체 증가분 중 달러화 비중	92.2% / TradeLens 계산

8월 잔액은 9월 잔액에서 공표 증가분을 차감했다. 전체 외화는 미달러 환산액이며 비달러 통화의 환율평가 효과가 포함될 수 있다. [7] [8]

수출대금과 증권투자 관련 고객 자금 등이 예금 증가 배경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예금 증가분 전체를 수출기업의 환전 기피로 돌릴 수 없다. 그래도 달러 잔액이 늘었다는 사실은 소득 발생과 현물환 공급 사이의 시차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8]

더하면 안 되는 숫자

거주자의 국내 은행 외화예금은 그 자체로 국경 간 거래가 아니다. 은행이 같은 달러를 해외에 운용하면 별도의 대외자산 거래가 생긴다. 예금 증가와 해외자산 증가를 독립적인 “유출”로 합산하면 이중계산할 수 있다.

07 / TWO DOLLAR MARKETS

달러를 빌리기 쉬워도 원화는 약해질 수 있다

달러 보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것과 달러를 팔려는 것은 다르다.

구분	현물환시장	외화자금·스왑시장
경제적 질문	원화와 달러 중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필요한 기간의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주요 가격	원/달러 환율	스왑레이트·금리차·가산금리
달러 보유자의 선택	달러 매도 후 원화 보유	달러 대여 후 만기에 달러 회수
대표적 위험	환율 변화	차환·유동성·거래상대방 위험

한국은행은 2026년 1월 해설에서 달러 대여 공급이 충분한 자금시장과 달러 매입 수요가 강한 현물환시장을 구분했다. 이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며, 1월의 가산금리나 자금 사정을 11월 현재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현물환

달러 보유 → 매도 → 원화 보유

통화 위험의 방향 변경

스왑·자금

달러 제공 → 기간 경과 → 달러 회수

기간·조달 비용의 문제

어떤 증거가 위기 판단을 바꾸는가

환율 상승만으로 달러 조달 위기를 판정하지 않는다. 조달 가산금리 상승, 만기 단축, 담보 요구 확대, 차환 실패가 함께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하다. 반대로 조달 여건이 안정적이면 환율 변동은 통화 보유 수요와 가격 조정의 문제일 수 있다.

> **TradeLens 판단**
>
> 흑자·외화예금·환율을 하나의 "달러 부족" 지표로 묶지 않는다. 매매와 차입을 나누면 외화가 풍부한데도 현물 달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08 / STRUCTURAL CHANGE

흑자를 쌓는 주체가 바뀌면 환율 반응도 달라진다

대외자산 축적은 장기 완충력이다. 단기 현물환 수급과는 시간축이 다르다.

한국은행의 2026년 4월 연구는 해외자산 축적이 공공 준비자산 중심에서 민간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상품충격과 금융충격을 구분한 분석은 같은 흑자 확대라도 원화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구조적 해석이며 11월 6일 하루 변동의 기여도 추정은 아니다. [9]

흑자 확대의 경로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힘	분석상 함의
수출 경쟁력·외화 수취 개선	원화 비용 충당을 위한 환전	흑자와 원화 강세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
해외자산 선호·국내 투자 둔화	저축의 해외 배분·달러 보유	흑자와 원화 약세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
누적 해외자산의 투자소득	국내 환류 또는 현지 재투자	소득 증가만으로 환전 규모를 정할 수 없음

재투자이익은 현금 송금과 다르다

해외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재투자하면 투자소득과 대외자산이 늘어도 국내에 환전할 현금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6월 한국은행 연구도 투자소득의 증가와 재투자 비중을 분리해 환율 효과를 분석한다. [10]

설명용: 전액 소유 해외법인의 이익 10을 모두 현지 유보

소득 기록 +10 / 해외 직접투자 자산 +10 / 국내 송금 0

동일 이익의 통계상 두 기록이며, 국내 현물환 매도는 발생하지 않는 가정이다.

구조 변화가 주는 새로운 질문

해외투자는 장래 이자·배당을 만드는 자산 축적이다. 경제적 가치를 자본도피로 일괄 분류할 수는 없다. 다만 장래 소득의 크기와 국내로 환류되는 비율을 함께 봐야 원화 지지력을 평가할 수 있다.

09 / MARKET TRANSMISSION

외국인 매도액이 환율 기여도는 아니다

통계의 범위를 맞춘 뒤 금리·위험선호·헤지·시장 심도를 함께 해석한다.

같은 9월을 보는 두 통계	공표값	올바른 사용
국제수지 증권투자 부채 증감 [3]	−138.1억달러	국제수지 금융계정 흐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의 외국인 증권자금 [5]	−199.7억달러	해당 자료가 정의한 자금 유출입

두 수치를 합산하거나 차이를 곧바로 “누락된 외국인 매도”로 해석하지 않는다. 포괄·집계·계상 시점이 다른 통계이며 이 보고서는 별도의 수치 연결표를 추정하지 않는다.

금리·수익률

통화별 자산 선호

위험선호

회수·현금 확보

헤지·결제

주문 시점의 이동

시장 심도

같은 주문의 가격 영향

자산 가격 하락은 자금 유출입에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매도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증권을 팔아도 원화예금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원화자산을 사면 전액 달러 매수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자산 매입은 기존 외화로 결제할 수도 있다.

> **확인할 것은 동행이 아니라 전달 경로다**
>
> 은행은 고객 주문의 순포지션을 은행간시장에서 조정한다. 같은 매도 규모라도 반대 주문과 시장 심도에 따라 가격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환율 상승을 외국인 매도 하나로 설명하는 회귀계수 없는 분해는 피한다. [12]

10 / ILLUSTRATIVE CONVERSION SENSITIVITY

같은 수취액도 환전 비율에 따라 수급이 달라진다

설명용 모형. 국가 국제수지를 재구성하거나 실제 환전 비율을 추정한 것이 아니다.

한 기간에 기업 집단이 달러 100을 수취하고 달러 지출·상환에 40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남은 60 중 q만큼을 원화로 바꾸며, 별도 투자 주체의 미충당 현물 달러 수요를 D로 둔다. 다른 거래와 은행 반응은 고정한다.

비교 잔액 = 60q − D

설명용 · 실제 통계 아님

환전 비율 q	D = 25	D = 40	D = 55
30%	−7	−22	−37
60%	+11	−4	−19
90%	+29	+14	−1

계산: 달러 매도 60q, 비교 잔액 60q−D. 단위는 임의 달러 금액단위. +는 모델상 달러 매도 우위, −는 매수 수요 우위. 환율 변화율·수준을 계산하는 모형은 아니다.

모형이 바꾸는 판단

D=40이 같아도 q가 30%이면 비교 잔액은 −22, 90%이면 +14다. 외화 수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환율 방향을 같게 예상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시장에서는 환율이 바뀌며 수출업체와 투자자의 행동도 다시 달라진다.

> **국가 통계에 바로 대입하지 않는다**
>
> 614.6억달러는 여기서의 총수취액 100이 아니다. 순수입인 경상수지에 임의 환전율을 곱한 뒤 해외투자를 차감하면 실제 현물환 수급을 재현할 수 없다.

11 / WHO BEARS THE FX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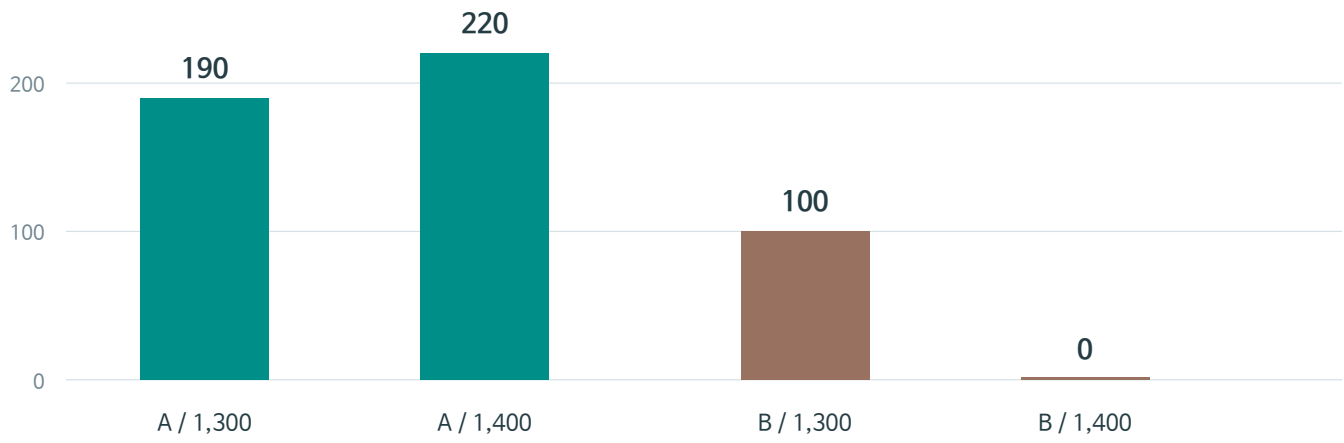
같은 원화 약세도 기업의 이익은 반대로 움직인다

가격·물량·국내 원가를 고정한 설명용 모형. 실제 기업의 전망이나 민감도가 아니다.

설명용 기업	달러 매출	달러 원가	원화 매출 / 국내 비용
순수출 기업 A	1억달러	0.7억달러	없음 / 200억원
수입·내수 기업 B	없음	1억달러	1,500억원 / 100억원

환율 변화와 설명용 영업이익

억원



A 이익 = (1억 − 0.7억) × 환율 − 200억원. B 이익 = 1,500억원 − 1억달러 × 환율 − 100억원. 헤지·세금·금융비용·가격 전가·물량 변화는 제외.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하면 A의 이익은 19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지만 B는 100억원에서 0으로 줄어든다. “수출기업 수혜”보다 정확한 기준은 같은 시점에 결제되는 순달러 영업노출과 헤지다.

회계상 이익과 현금 지급을 함께 본다

해외자산의 원화 환산가치 상승은 원화 현금 유입이 아니다. 달러채무가 있는 기업은 평가손익뿐 아니라 상환 시점의 달러 조달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환율 변화의 귀속은 자산·부채·영업노출마다 다르다.

12 / POLICY & LIQUIDITY BUFFERS

국가의 외화자산을 하나의 금고로 볼 수 없다

민간 자산·공식 준비자산·스왑 한도는 소유자와 사용 조건이 다르다.

완충장치	도움이 되는 경로	같지 않은 것
기업·가계 해외자산	매각·배당·이자로 외화 조달 여력	당국이 즉시 사용할 준비자산
국내 은행 외화예금	예금주 결제 재원·은행 달러 자금조달	현물환시장의 자동 매도 물량
공식 외환보유액 [15]	대외지급·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산	민간의 모든 환손실 보전 재원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14]	정해진 거래 조건의 외화 조달 경로	이미 집행한 금액·영구적인 달러 공급

2025년 12월 발표에서 당국과 국민연금은 650억달러 한도 외환스왑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도는 이용 가능한 거래의 상한이지 현재 사용액이 아니다. 보고서는 이를 경상흑자·외화예금에 더해 “국내 달러 총량”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14]

정책의 역할과 한계

조달 경로를 분산하고 급격한 주문 쏠림을 완화하는 조치는 시장 기능을 돕는다. 하지만 거주자의 장기 자산배분 선호와 기업의 현지 투자 수요를 없애지는 않는다. 시장 안정의 기준도 특정 환율 수준의 유지보다 거래·결제·차환의 지속성에 두는 편이 적절하다.

> **최종 부담자는 계약으로 구분한다**
>
> 당국의 준비자산, 은행의 만기관리, 기업의 환헤지는 다른 위험을 관리한다. 어느 한 잔액이 크다는 이유로 나머지 주체의 유동성 위험까지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13 / CONDITIONAL OUTLOOK

흑자만으로 원화 강세를 예측하지 않는다

향후 1~3개월 조건부 전망. 목표환율·시나리오 확률·매매 시점은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 판단

수출 기반 흑자는 원화의 완충력으로 남지만, 민간의 달러 보유·해외자산 배분과 위험선호가 단기 방향을 흔들 수 있다. 현재의 자료 조합은 **흑자에 의한 일방적 절상보다 금융수요에 민감한 변동성 지속**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든다.

경로	함께 나타날 조건	예상되는 경제적 방향
원화 지지 강화	수취·실제 환전 확대 + 외국인 원화자산 수요 회복 + 조달 안정	현물 달러 공급 개선, 환율 상승 압력 완화
양방향 변동성 지속	흑자 유지 + 해외자산 수요 지속 + 간헐적 위험회피	수출 환전과 금융 수요가 번갈아 우세
약세·스트레스 확대	수출 수취 둔화 + 외국인 회수 + 달러 조달비 상승	소득 완충력 약화, 현물·자금시장 동시 부담

약세 시나리오에 필요한 것은 경상흑자 한 번의 축소가 아니라 수취·자금흐름·조달 조건의 동반 악화다. 반대로 큰 흑자 발표만으로 강세 시나리오를 채택하지 않는다. 시장이 이미 예상한 흑자는 새로운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시간축에 맞춰 판단한다

개별 거래일에는 위험회피와 주문 쏠림을, 다음 월간 통계에서는 수취·예금·투자 흐름을, 1~3개월에는 이 흐름의 지속성을 본다. 하루의 환율 변화를 중기 구조의 증거로 곧바로 승격하지 않는다.

위 방향은 TradeLens의 조건부 해석이다. 9월 국제수지, 9월말 예금, 11/6 주간거래를 서로 다른 관측창으로 사용하며 같은 날의 인과관계로 합치지 않는다.

14 / MONITORING & FALSIFICATION

다음에는 흑자보다 환류의 경로를 확인한다

수치의 크기보다 기간·소유자·결제 통화·만기를 일치시킨다.

관찰 항목	판단 강화 신호	판단을 바꿀 증거
다음 국제수지	상품흑자 유지와 투자소득 확대	수출 수취 기반의 지속 약화
외화예금·기업 환전	자금 사용처와 환전의 시차 지속	환전 확대가 반복되고 현물 공급으로 연결
거주자·외국인 증권거래	해외자산 수요와 자금 회수 반복	원화자산 수요 회복과 국내 재투자 확대
외화자금시장	현물 변동에도 조달·차환 안정	가산금리·만기·담보 조건의 동반 악화
달러·실질환율	글로벌 및 국내 요인의 복합 영향	실제 환전 이후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패턴

현재 판단을 수정할 세 가지 경우

첫째, 흑자 확대와 함께 실질적 환전 및 원화자산 유입이 지속되면 원화 지지력 평가를 높인다. 둘째, 수출 수취와 달러 조달이 동시에 나빠지면 단순 수급 변동이 아닌 대외유동성 위험을 더 중시한다. 셋째, 환전이 늘어도 원화가 약하면 “환전 부족” 설명의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달러·위험 프리미엄을 다시 본다.

> **독자에게 남길 기준**
>
> 한국이 달러를 벌고 있다는 사실과 시장이 원화를 사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615억달러의 의미는 당일 환율을 맞히는 숫자가 아니라, 대외소득이 어떤 자산과 통화로 남는지를 추적하는 출발점이다.

15 / SOURCE REGISTER · DATA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된다.

01. 한국은행 |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 원문 열기

2026.11.05 · 공식 통계 · 9월 경상수지 614.6억달러, 잠정치

02. 한국은행 | Balance of Payments during September 2026 원문 열기

2026.11.05 · 공식 영문 발표 · 경상수지 61.46bn,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 54.34bn

03.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 원문 열기

2026.11.06 · 한국은행 발표 재전달 · 경상수지 구성·직접투자·증권투자 세부치

04.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원문 열기

2026.10.16 · 한국은행 자료 요약 · 원/달러 하락·수출업체 매도·외국인 자금 흐름

05. 아시아경제 | 9월 외국인 증권자금·환율 동향 보도 원문 열기

2026.10.16 · 한국은행 발표 보도 · 8/31·9/30·10/14 환율, 증권자금 유출

06. 연합뉴스 | 11월 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마감 원문 열기

2026.11.06 · 시장 보도 · 15:30 기준 1,356.6원, 전일 대비 14.5원 상승

07.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2026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원문 열기

2026.10.28 · 한국은행 자료 요약 · 총예금 1,547.1억달러, 달러화예금 증감

08. 아시아타임즈 | 9월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보도 원문 열기

2026.10.28 · 한국은행 발표 보도 · 달러화예금 잔액 1,329.0억달러, 자금 유입 배경

한국은행 발표와 이를 전달한 보도·요약 자료를 구분했다. 과거 연구는 메커니즘 설명에 사용하며 현재 하루 환율의 원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6 / SOURCE REGISTER · MECHANISMS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된다.

09. 한국은행 |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원문 열기

2026.04.17 · BOK 이슈노트 2026-9 · 공개 요약, 민간 해외자산·상품충격·금융충격

10. 한국은행 |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원문 열기

2026.06.18 · BOK 이슈노트 2026-15 · 공개 요약, 투자소득·현지 유보·재투자 경로

11. 한국은행 | 외화자금시장에 달러는 많은데 환율은 왜 오르는 것일까? 원문 열기

2026.01.19 · 공식 해설 · 외화자금시장·현물환시장 구분; 당시 여건은 역사적 사례

12. 한국은행 | 외환시장과 환율: 외환시장 원문 열기

상시 자료 / Reference · 시장구조 해설 · 대고객·은행간 거래와 환위험 관리

13. 한국은행 | 제764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활용 원문 열기

2018.11.05 · 통계 개념 해설 · 거주성·거래·발생주의; 2018년 수치는 인용하지 않음

14. 한국은행 |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왑 한도 연장 합의 원문 열기

2025.12.15 · 공식 합의 발표 · 2026년 말까지 한도 연장; 실제 사용액과 구분

15.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의 의의 원문 열기

상시 자료 / Reference · 공식 설명 · 대외지급 준비자산과 민간 외화자산의 구분

한국은행 발표와 이를 전달한 보도·요약 자료를 구분했다. 과거 연구는 메커니즘 설명에 사용하며 현재 하루 환율의 원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공식 통계·시장 보도·기관 연구·TradeLens 해석·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범위	2026.11.07. 9월 국제수지·9월말 예금, 8/31~11/6 선택 환율 관측치를 구분한다.
금액·기간	국문 표는 억달러, 영문은 USD bn 중심. 1bn달러=10억달러이며 614.6억달러=$61.46bn. 흐름과 잔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계산	구성 합계·순자산 취득·환율 변화는 표시한 원수치로 계산한다. 원화 가치 변화는 환율 역수 기준이며 최종 단계에서 반올림한다.
설명용 모형	11~12쪽은 임의 금액과 고정 조건의 계산. 실제 환전율·기업 민감도·환율 목표가 아니며 인과계수나 확률을 추정하지 않는다.
자료 성격	한국은행 잠정치와 공식 해설 우선. 세부 발표 재전달·시장 보도는 출처에 별도 표시. 과거 연구의 기간과 현재 관측을 혼합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